

대학글 쓰기 에세이 과제

202212106 박상은

나는 주제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추모를 하고 있는 지금 이태원에 가도되는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한다. 이태원 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할러원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이다. 참사 당시 covid-19가 줄어든 후 처음인 할러원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들어 대규모의 사상자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하였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는 이태원의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 인력조차 불법촬영과, 마약단속을 위해서 배치된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섞이고있다. 이태원이라는 서울 도심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이후로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한다는 주장과 이태원에 출입금지가 생긴 것도 아니며 통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고싶은 사람만 가면된다라는 의견이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이태원의 상권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시작된 지금의 시점에도 이태원에서는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태원에서 광화문으로 거리응원 추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둘째 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동인구도 30% 가량 줄었습니다.' (채널A 2022-11-24 10:34 채널A 종합뉴스 김예지기자)이렇게 사람들이 이태원을 피하는 이유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무서워서, 제2의 이태원참사가 일어날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변에 시선이 아니라면 이태원의 거리가 한산한 지금이 적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이태원 거리에 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가워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쓴다. 사실 나만이 아니라 몇몇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살 것이라 생각된다. 이태원을 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이다. 지금 이태원에 가서 놀게된다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돼서 이태원에 발걸음이 줄어들며 상권이 죽어간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태원 상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갈 것이라고 나도 이 의견에 마냥 반대만 하지는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러길 바라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태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4~5년 동안 이태원 참사를 기억할 대중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태원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만 관심이있다. 물론 누군가를 잃은 고통에는 절대 비할 수 없지만 자영업자들도 이태원 참사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다. 2019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이태원의 상권은 이미 파괴되었다. 2년동안의 시간동안 이태원의 자영업자들은 버티며 2022년 이태원 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오자마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또 1년에서 2년간 이태원 상권이 멈추게된 것이다. 이걸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태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있는 곳으로 임대료가 결코 싸지 않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두가지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임대료의 조정이다. 이태원의 임대료는 2020년 5월 시점으로 역세권, 2층건물 기준으로 평당 10~20만원에 형성되어있다.(이태원 부동산 업자 김대표 블로그 참고) 이태원의 작은 20평대의 작은 술집을 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된다면 3,000,000원 이상의 월세를 내게된다. 20평기준의 작은

가게에서도 3,000,000만원에서 4,000,000만원의 비용이 월세로 나온다면 covid-19와 이태원 참사로 무너진 상권의 수입으로 감당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내 생각으로 covid-19상황에 나왔던 임대료 지원 정책은 이태원참사에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이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0~100% 인하하도록 하는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나는 이 정책을 특정한 일로 무너진 상권 즉 이번 이태원 참사로 무너진 이태원거리에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태원의 부분 추모화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의 좁다면 좁을 수 있고 넓다면 넓다고 말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말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일어났지만 이태원 전체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태원 전체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이태원 모든 곳을 가기는걸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 추모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라는 내용으로 이태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소비는 꽤나 중요하다. 이미지 소비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의 상품 구매나 서비스 선택이 이미지로 좌우된다는 것.따라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기업은 상품구매에도 그 이미지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라고 적혀있다. 이 것은 특정지역의 상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태원의참사라는 이미지가 이미 많은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에서 이태원참사라는 내용으로 이태원의 이미지가 소비되고있다. 참사로 이태원의 이미지가 소비됨으로 인하여 이태원 전체를 애도의 장소로 생각해야하는 생각이 많아졌으며 이태원 전체의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참사의 명칭부터 근처 거리의 이름을 따 119-3참사 등으로 바꿔 이태원의 이미지 소비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태원에 가지 말아야한다는 의견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잊으면 안 되며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들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야한다. 실제로도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의 수학여행, 수련회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이태원의 상권이라는 것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며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태원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라도 이태원 전구역을 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앞서서 말했듯 내가 생각한 이태원참사로 인한 자영업자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이태원참사로서의 이미지소비 금지이다. 이 방법은 국가에서 정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태원 참사로서 이미지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태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